

21세기와 한국인의 원형

이 재 락(한국화학연구소 화학소재연구부)

지난 연말에 전세계적으로 서기 2000년을 맞이하는 떠들썩한 광경을 보면서 이러한 서기 2000년을 맞이한다는 것이 한국사람인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영어를 제 2의 국어화 내지는 공용어화 하자는 소식이 들려오고, 한국의 일각에서도 영어를 공용어화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일면 세태의 급격한 변화가 도래되고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일말의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는 모든 사회질서의 근간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문화의 세기라는 21세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이 인터넷 시대의 적응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본인은 프랑스에 4년 반 동안 유학생으로 체류하면서 많은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과 대화를 할 기회를 가졌다. 옛 불령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은 식민시대의 유산 탓에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부러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프랑스에서는 100 여년 전에 없어진 불어식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다수 있고, 프랑스에서는 옛날에 사라진 문법을 고집하는 친구들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현재의 일반 프랑스인들 보다 더 정확하게 불어를 쓰고 있다는 자부심을 보이곤 하였다.

그렇다고 불령 아프리카가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이 되었는가?, 또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영국령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진국이 되었는가? 그리고 나 자신이 유학을 가기 전에 배운 불어도 약 2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쓰던 불어의 형태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무조건 남의 말과 풍속을 받아들이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적응능력의 상실과 영구한 종속을 초래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영어라는 것도 예전에는 무식한 양치기 목동들이 쓰던 말이었는데, 최근세에 영국인들이 세계를 휩쓸고 다닌 덕택에 대접을 받는 것이고, 독일어도 천덕꾸러기 농민들이 쓰던 말을 갖고 다듬어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라는 형태의 언어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각고의 노력은 등한히 한 채 남의 덕을 보겠다는 발상은 가장 소중한 스스로의 자산을 내버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작금의 시대는 도박 경제시대, 광속변화 시대, 벤처 경제시대, 디지털 경제 시대, 정보혁명 시대, 제5산업시대 등의 다양한 지금까지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용어로 규정지어 질 수 있는 새로운 사조가 지배하는 시대임은 틀림없는 것 같다. 이러한 급변하는 와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의 무한한 창조가능성을 지니는 것은 고유의 환경토양에서 자라난 문화유산과 인류학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학계는 식민사관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스스로의 역사를 폄하하기에 바쁘고, 후세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교육하는 고로 한국의 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우려를 자식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해왔다. 그 예로 몽고가 유라시아 대륙을 무력으로 정복할 때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고려였

다. 49년간의 항쟁을 통하여 비록 승리하지는 못하였으나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종전을 함으로써 부마국의 지위를 얻게되었다.

또한 몽고의 강요에 의하여 역지로 일본 원정에 나서 일본열도에 상륙한 고려군은 반세기의 전쟁에 단련된 노련함으로 일본의 주력 방어군과 러·몽 연합군의 대회전 당시 과죽지세로 일본군을 밀어 붙여 일본 주력군을 궤멸시키려는 순간까지 갔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고려군의 전공을 시기한 몽고군 사령관의 웅졸한 후퇴 명령으로 목숨을 건진 일본군들이 싸우기를 포기하고 성안으로 숨어들어가서 도대체 싸움에 응하지를 않았다 한다. 러·몽 연합군은 지니고 간 군량이 고갈되어 회군하다가 태풍을 만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이로 말미암아 러·몽 연합군의 일본 원정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철저히 외면된 채로 일본의 식민 사학자들이 남긴 태풍이 불어서 모든 것이 실패했다는 엉터리 사실을 교육시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역사의 왜곡이 심한 것을 바로잡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조상들의 지혜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책자의 형태로 정리하게 되었다.

한국의 소위 조금 배웠다하는 사람들이 제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천시하는 못된 풍습을 아직도 굳건히 유지하는 경향이 많음을 한탄하던 차에 뜻한 바가 있어 21세기를 맞이하는 벽두를 기하여 본인이 옛날부터 조금씩 자료를 축적한 것을 바탕으로 “원래사람, 한국사람, 본래사람”이란 제목의 책을 자비출판 형태로 펴내게 되었다. 머릿글과 목차는 다음과 같다.

이 책은 시중 서점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으니,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12,000원을 On-Line으로 “국민은행 대덕단지 지점, 계좌번호: 468-21-0079-134, 예금주: 이재락”에 입금하신 뒤에 E-mail 주소: jrlee@pado.kriict.re.kr로 연락주시면 책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셈타라는 제목에 어울리지 않게 장광설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 넓은 도량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원래사람·한국사람·본래사람 (부록: 큰공부 운기(運氣)수련법)

머 리 말

우리나라의 역사가 장구하고, 찬란한 문화를 가졌다 하는 이야기는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언급되어 왔으나, 그 사이의 술한 전란과 정변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자료가 소실되어 온 결과 근자에는, 무엇이 우리의 제대로 된 모습인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혹자는 우리의 역사는 보잘 것 없었다는 자괴감에 빠져서, 남의 것만을 숭상하기도 하고, 혹자는 미약한 전거(典據)를 바탕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다 보니, 논리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 따라서 구전으로 전해진 내용들을 정리하여, 체계화 함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개척함이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동서양(東西洋)의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자신들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미망에 빠져서 헤매이는 우리들은 결국에는 제갈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골육상잔의 내분으로 붕괴되어, 다른 종족들의 침략을 받아, 그들의 무력에 패망하여 남의 노예가 되거나, 행여 잠시의 운세가 좋아서 무력이 강해져서, 문화적으로 우월한 다른 종족들을 일시적으로 정복했다 할지라도, 중국에는 그들에게 동화되고 흡수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동안 여러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집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口傳)과 설화(說話)들을 바탕으로 약간

의 깨달음을 얻은 연후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인연을 같이 하였던 많은 도우(道友)의 이야기와 경험 및 산 중에서 마주친 이름 모를 스님들과 도인들의 가르침과 여러 곳에서 만난 이름모를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지나치면서 던진 뜻 깊은 이야기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들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줄기를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보배로운 유산이 아닌가 생각되어 줄필을 들게 되었다.

원래 옛날의 많은 역사책들과 수련결들은 조상 대대로 전하여 내려오는 구전(口傳)을 바탕으로 정리되어 쓰여진 것들이었다. 지금 술한 옛날 책들이 불타고 파묻혀 버렸으니, 없어진 것들을 탓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닿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시 지금까지 전해지는 구전들을 정리하여, 옛일을 조금이나마 밝히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또한 세상의 변화가 워낙 급박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중심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심신이 곤고한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에게 맞는 심신수련법(心身修練法)을 찾고자 하나, 기후(氣候)와 식생(植生) 그리고 생활(生活) 습관(習慣)과 인식체계(認識體系)가 생소한 외래의 수련법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면, 우리 나라 고유의 심신수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놓은 것은 제대로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중에 그 동안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을 취합하고, 여러 선생님들의 귀한 가르침들을 정리하던 차에, 30 여년간의 긴 세월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누벼서,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갖가지 수련결들을 채록하여 전해 주신 금현(琴) 선생님의 권고로 책으로 펴내게 된 데에는, 근 20년 가까운 세월을 서로 토의하며, 스스로의 수련을 꾸준히 이어오는 주박사가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가르침을 받아 혼자서만 가슴속에 간직할 것이 아니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퍼는 것이 구활창생(求活蒼生)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냐는 제안이 하나의 불씨가 되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걸쳐 마음의 손길로 도와준 안사람의 도움이 책의 내용을 다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짧은 지식이나마 찾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천부경(天符經)의 원래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지던, 산중수련결(山中修練訣) 중에서 주로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요결(要訣)들을 바탕으로 하여, 누구나 비교적 쉽게 체득 할 수 있도록, 요즈음의 현대 한국인들을 위한 기초 심신수련법인 큰공부 운기(運氣) 수련법을 정리하였다.

여러 어르신께서는 내용 중에 모자란 점과 미진한 점들이 많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량하시어,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룩하는 데에 작은 하나의 받침돌이 되고자 하는 바이다.

단기(檀紀) 4332년 음력(陰曆) 9월 9일

서기(西紀) 1999년 양력(陽曆) 10월 17일

실 터 광 고

쥔터는 회원의 수필 기사를 다루어 기술지 기사를 정독하시는 분들의 정신적 휴식을 가지시도록 하기 위한 장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수필을 실었으면 합니다. 많은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